

여행경력에 따른 장애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관광동기의 역할 차이 고찰*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t Roles of Tourist Motivations and Travel
Career on Disabled Tourists' Decision Making Types

이 봉 구**

Lee, Bong-Koo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tourist motivation types (i.e., push and pull theory) on disabled tourists' decision making (i.e., travel intention formation and destination choice), and to identify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ship among groups based on the individual's travel experience.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using convenience sampling to a select sample of people with a disability. A total of 201 usable responses were analyzed with SPSS 21.0. The major findings were: first, generally push-related motivations were given higher importance than pull-related motivations in both types of the disabled tourists' decision-making; second, in the case of travel intention forma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the groups in all push-related motivation dimensions, but, in another type of decision-mak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the groups in the 'accessibility' and 'novelty' dimension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핵심용어(Key words) : 장애인관광시장(Disabled tourist market),
추진-유인요인(Push-pull factor),
여행경력(Travel career),
여행참여의도형성(Travel intention formation),
여행지선택(Travel destination choice)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20063)

**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교수. e-mail: bongkoo1@deu.ac.kr

I. 서론

최근 관광활동에 참여 혹은 참여의향이 있는 장애인관광자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장애인(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이며 그 비율은 고령화 추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Buhalis & Darcy, 2011; Genoe & Singleton, 2009),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광 욕구(Darcy, 2010; Smith 1987)와 경제적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Dwyer & Darcy, 2008; ENAT, 2009), 동반자를 고려할 때 이들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훨씬 커진다는 점(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Ray & Ryder, 2003), 그리고 관광권(rights of tourism)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등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 이래 장애인과 관광에 대한 다양한 연구(예: 박승현·이영진, 2011; 박정아·한동일·이주희, 2011; 신선정·고동완·이정태, 2008; 이경찬, 2014; 이명철, 2012; 이봉구, 2008, 2011, 2013; Blichfeldt & Nicolaisen, 2010; Darcy, 2002, 2010; Huh & Singh, 2007; Ray & Ryder, 2003; Shaw & Coles, 2004)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관광권은 많은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일반적으로 관광자는 장애유무를 떠나 문제해결자로서 관광 참여와 관련하여 관광 참여의도 형성→정보수집 및 의사결정→관광 참여→평가라는 과정을 거침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모든 형태의 소비행동은 동기에 의해 유발된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따라서 동기가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즉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중 관광활동참여 선택과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목적지, 숙소, 루트 선정 등에 관한 결정 등)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관광자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기유형(추진요인 vs 유인요인)과 의사결정유형(대안 중 관광활동 참여 선택 vs 목적지선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독립적(Crompton, 1979, Dann, 1981) 혹은 동시 작용적(Pearce & Lee, 2005; Uysal & Hagan, 1993)이라는 주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Crompton, 1979; Dann, 1981; Shi, Cole, & Chancellor, 2012). 무엇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관광욕구를 가지고 있으나(Darcy, 2010; Smith 1987), 비장애인들이 가지지 않은 자신들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상이한 동기에 의해

관광 참여 관련 의사결정을 함을 유추할 수 있으나 이를 고찰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기유형(추진동기와 유인동기)과 장애인의 관광 참여 관련 의사결정 유형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은 이들의 관광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나아가 장애인 관광권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관광 관련 많은 연구들은 장애 관련 담론 중 하나인 사회적 모델, 즉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여부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결핍·손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성된 환경(예: 비장애인의 태도 및 정보·물리적 시설에 대한 비접근성)에 따라 결정된다(Aitchison, 2003)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인의 관광권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나 동일한 환경에 처한 동일 유형의 장애인이라도 타인과의 관계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능력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 또는 대응방법은 상이하다는 점, 즉 장애는 정적(static)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동적(dynamic)인 것이라는 점(Evans, 2004; Fitzgerald, 2005)을 간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행 관련 과거 경험의 다소를 의미하는 여행경력(travel career, Pearce, 1988)은 관광환경 및 타인과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하여 관광자의 관광환경 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일한 환경에서 상이한 반응을 야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Falk, Ballantyne, Packer, & Benckendorff, 2012). 따라서 이를 고려한 장애인관광자에 대한 이해는 장애인의 관광권 향상을 위한 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상기 논의에 근거하여 첫째, 장애인의 관광동기유형(추진요인, 유인요인)과 관광 참여 전 의사결정유형(대안 중 관광 참여의도형성, 목적지선택) 사이의 관계는 독립적인가 아니면 동시 작용적인가? 둘째, 이러한 관계는 여행경력에 따라 상이한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실행되었다.

II. 이론적 고찰

1. 장애인관광자에 대한 선행 연구

장애인관광자에 의한 관광산업에의 경제적 기여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으나 선행 연구결과들(Dwyer & Darcy, 2008; ENAT, 2009; Neumann & Reuber, 2004)은 이들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장애인과 관광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확대되어 왔다.

관광분야에서 장애인과 관광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들이 당면한 내재적, 상호작

용적, 구조적 제약요인들에 초점을 둔 관광제약과 관련된 연구(Israeli, 2002; Shaw & Coles, 2004; Smith, 1987; 박정아 등, 2011; 심재명·최정자, 2008; 이봉구, 2008)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일부 연구들(Blichfeldt & Nicolaisen, 2010; Shaw & Coles, 2004; 신선정 등, 2008)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관광은 본인 및 보호자의 휴식, 자유로운 느낌, 장소 방문경험, 자아재발견 기회, 무기력감·불안·두려움 극복 시발점 등과 같은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전영록(2010), Lovelock(2010) 그리고 Ray & Ryder(2003) 등은 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활동(예: 자연경관감상)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Packer, McKercher, & Yau(2007)와 Yau *et al.*(2004)은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개인특성과 사회적·물리적 환경 등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Bergier, Bergier, & Kubinska(2010)의 연구에 의하면 여행비용, 친한 사람들, 의사 권고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인 반면 일부 연구자들(Burnett & Baker, 2001; Chang & Chen, 2011)은 관광지/관광시설 선택에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Darcy(2010)는 장애인의 관광정보욕구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하다는 결과를, 이봉구(2011)는 관광만족의 하위차원 이론을 적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정보 관련 하위 속성이 장애인의 관광만족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에 대해, 그리고 Blichfeldt & Nicolaisen(2010)는 관광 참여로부터 장애인이 얻은 편익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편 장애인의 관광동기에 대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는데 결과에 의하면 비장애인에게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관광동기, 즉 일상탈출, 휴식, 자연감상, 신기성 등과 같은 경험 이외에도 장애인에게 있어 독특하게 나타나는 관광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Ray와 Ryder(2003)는 사회적 유대감 형성,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배우기 위해 등이 주요한 동기임을 제시하였고, Blichfeldt & Nicolaisen(2010)은 지체장애인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돌봄”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기가 강하게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Shi *et al.*(2012)은 관광 활동 참여 빈도가 높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독립심, 자연환경을 접하고자 하는 열망, 모험/위험, 지금 당장 하기, 접근성 등과 같은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상이한 동기에 의해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관광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광동기의 역할

관광상품/서비스 소비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므로 관광활동참여와 관련하여 거치는 의사결정은 일반 제품의 경우와 상이하다(Decrop, 2006). 즉 관광상품/서비스 소비 관련 의사결정단계는 관광활동참여 이전 단계와 현지 단계로 구분될 뿐 아니라, 참여 이전 단계의 의사결정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예: 산책, 운동, 영화감상, 친구와 수다 떨기 등) 중에서 관광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정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목적지, 참여시기, 이용교통수단 및 숙박지, 동반자 등과 관련된 결정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관광관련 의사결정은 일련의 의사결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Mathieson & Wall, 1982)이며, 이 과정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은 관광활동참여 여부 결정(즉, 관광 참여의도형성)이고, 두 번째는 목적지선택 관련 결정으로(Crompton, 1979), 이들은 후속되는 다양한 유형의 결정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관광자에 대한 만족스러운 경험 제공은 관광지/관광기업의 지속성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인 까닭에 관광행동에 대한 강렬함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인 관광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다양한 관광동기이론(Beard & Ragheb, 1983; Iso-Ahola, 1982; Plog, 1974)이 제시되었으나, 추진(push)-유인(pull)요인모델(Compton, 1979; Dann, 1981)은 비록 많은 비판이 존재하고 있지만 관광동기 고찰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추진요인은 관광자로 하여금 관광활동에 참여하도록 밀어내는 힘(Crompton, 1979; Dann, 1981)으로, Dann(1977)은 사람들의 관광동기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로부터의 탈피동기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so-Ahola(1982) 역시 일상생활로부터의 탈피와 내재적 보상 추구를 추진요인으로, Plog(1974)는 신기성과 친숙성으로 추진요인을 요약하였다. 한편 Crompton(1979)은 관광활동 참가에 있어 작용하는 9개의 사회·심리적 동기 중 7개 동기(일상 환경으로부터의 탈피, 자아 탐색과 평가, 휴식, 신분 상승, 회귀, 대인관계강화, 사회적 교류)를 추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유인요인은 관광자를 끌어당기는 관광지의 매력성과 관련되어 있으며(Crompton, 1979; Dann, 1981), 관광지의 속성에 대한 관광자의 주관적 이미지에 반영되어 있다(Hung & Petrick, 2012). Crompton(1979)은 유인요인으로 신기성과 교육성을, Shi *et al.*(2012)은 이외에 접근성을 제시하였다.

관광동기를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으로 구분한다면 각각의 동기유형이 관광 참여

관련 일련의 의사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관광상품/서비스 관련 정책/방안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상기 관계에 대해서는 두개의 관점이 존재한다. 한 관점에 의하면 추진요인은 사람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심리적·생리적·사회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중 특정 대안, 즉 관광 참여의도 형성에 작용하며, 유인요인은 관광지의 매력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장소인 관광지선택에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Crompton, 1979, Dann, 1981, Shi *et al.*, 2012). 다른 관점은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은 관광 참여의도 형성 뿐 아니라 관광지선택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Pearce & Lee, 2005; Uysal & Hagan, 1993). 어떤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기유형과 의사결정유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나(Crompton, 1979; Dann, 1981; Iso-Ahola, 1982) 이를 고찰한 연구는 Shi *et al.*, (2012)의 탐색적 연구를 제외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탐색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 1] 장애인의 관광 관련 의사결정유형과 관광동기 유형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1-1] 장애인의 관광 참여의도형성에 있어서 중요성은 유인요인보다는 추진요인이 더 강한가?

[연구문제 1-2] 장애인의 관광지선택에 있어서 중요성은 추진요인보다는 유인요인이 더 강한가?

3. 여행경력

전술하였듯이 다양한 주제로 최근 수행된 장애인과 관광 관련 연구들은 장애는 동적(dynamic)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Blichfeldt & Nicolaisen, 2010; Evans, 2004; Fitzgerald, 2005; Packer *et al.*, 2007). 장애의 동적 현상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관광활동 참여 관련 과거 경험의 다소를 의미하는 여행경력을 들 수 있다(Pearce, 1988).

개인의 관점에서 여행경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독립심 증대, 개방적인 마인드 확대, 타인과의 관계 및 세계관 수정,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능력제고 등의 효과

를 얻게 하여(Pine & Gilmore, 1999; Scarinci & Pearce, 2012), 결과적으로 타인과는 상이한 관광행동을 보이게 한다. 예를 들어 Pearce(1988)와 Pearce & Lee(2005)는 여행경력이 많은 관광객들은 적은 관광객들에 비해 자아실현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장애인 역시 여행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관광활동 관련 다양한 측면(예: 예약 방법, 시설 이용 방법, 구체적 활동 참가 방법, 규범 등)에 대한 정보 습득 및 학습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개인적 장애로 손상된 자아 회복 및 자존감 증대, 관광 관련 지식·기술 향상, 태도 변화, 관광환경 내에서의 문제해결능력, 타인과의 관계 재구성 능력 등이 향상됨으로써 향후 의사결정을 포함한 관광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게 된다(Blichfeldt & Nicolaisen, 2010; Hsu & Huang, 2008). 따라서 여행경력은 장애의 동적현상을 유발하는 하나의 기제라 할 수 있다. Yau, McKercher, & Packer(2004)은 장애인관광이 하나의 독특한 연구 분야로 정착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주제로 장애인의 여행경력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장애인들은 그들이 가진 신체적·정서적·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훨씬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데 장애인의 여행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의 복잡함이 감소함을 제시한 Blichfeldt & Nicolaisen(2010)의 연구를 제외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행경력이 장애인관광행동, 특히 동기와 의사결정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 장애인의 여행경력에 따라 관광 참여 관련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관광동기 유형이 가지는 중요성은 상이한가?

[연구문제 2-1] 장애인의 여행경력에 따라 추진동기요인이 관광 참여의도형성에 미치는 중요성은 상이한가?

[연구문제 2-2] 장애인의 여행경력에 따라 유인동기요인이 관광목적지결정에 미치는 중요성은 상이한가?

III. 연구방법

1. 설문지 개발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광동기는 “장애인이 관광 참여와 관련하여 내리는 일련의 의사결정의 방향과 강렬함을 결정짓는 추동력”이라 정의되었다. 측정항목은 선행연구(Crompton, 1970; Dann, 1981; Iso-Ahola, 1982; Plog, 1974; Ray & Ryder, 2003; Shi *et al.*, 2012)와 관광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장애인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추진동기와 유인동기를 포함하는 총 19개 문항(〈표 3〉 참조)을 도출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였다. 응답자들은 두 개의 의사결정 상황별(관광 참여의도 형성 및 관광지선택)로 각각의 동기가 가진 중요성의 정도를 Likert 형 5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음, 5: 매우 중요함) 상에 표시하도록 요청되었다.

여행경력은 과거 관광활동 참여 경험의 다소와 관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여행 참여경험 정도”로 정의되었다. 선행 연구들(Blichfeldt & Nicolaisen, 2010; Falk *et al.*, 2012; Pearce, 2005; Pearce & Lee, 2005; Ryan, 1998; Scarinci & Pearce, 2012)과 전문가 및 관광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장애인과의 논의를 통해 2개의 항목(“지난 3년간 관광활동 참여횟수”, “지난 3년간 방문한 관광지 수”)을 도출한 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지난 3년이란 기간을 제시한 이유로는 장애인에게 있어 여행은 특별이벤트라 할 수 있어 지난 3년간의 여행시기와 방문 장소에 대한 기억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 Pearce & Lee(2005)는 전 생애기간 동안 해외여행 횟수에 대해 질문하였고, Ryan(1998)은 과거 10년 동안의 휴가여행에 대해 질문한 것을 고려할 때 3년이란 기간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밖에도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과 관광행태적 특성(여행기간, 동반자, 이용교통수단, 이용숙박시설, 여행경비 조달 방법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지난 1년간 관광활동참여 경험이 있는 부산광역시 거주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의 이해용이성, 적절성, 응답 용이성 등에 대한 사전 조사(pilot test)를 실시한 후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표본은 부산광역시 소재 장애인 중에서 편의추출법에 의거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다양한 활동(예: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 장애인복지관 방문, 장애인단체 회원 모임 등)에 참석한 장애인들에게 설문 내용과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설문 조사원들이 접근하여 최근 3

년 이내에 관광활동에 참여한 경험 유무와 설문 참여의향을 확인한 후 면-대-면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참여의향은 있으나 응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예: 중증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인지장애인 등)의 경우 설문조사원이 설문 내용을 읽어 주고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한편 응답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지 작성 완료 후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총 227매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하고 일관된 응답 성향을 보인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201매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입력한 후 SPSS PC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행태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연구문제 1은 기술적 분석을, 연구문제 2는 주성분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한 측정개념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한 후 일원량분석분석 및 Tukey 사후분석을 실행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응답자 중 남성의 비중(58.67%)이 여성(41.4%)보다 높았으며, 연령별 분포는 50대(36.5%), 40대(20.8%), 60대(15.7%), 30대(13.7%), 20대(7.1%), 70대 이상(6.1%) 순인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76.9%가 고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세금공제 전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50만원 미만(44.9%), 50만원-100만원 미만(22.5%), 100만원-200만원 미만(16.0%), 200만원-300만원 미만(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9%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22.1%는 인지장애(뇌병변, 뇌성마비, 정신장애 등)를, 6.8%는 시각장애를, 2.1%는 심장질환, 신장질환, 호흡기 등과 같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 분포는 1급(58.7%), 2급(18.4%), 3급(13.3%), 4급(8.7%) 순이었으며, 선천적 장애인 경우보다(30.8%) 후천적 장애인인 경우(69.2%)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중 81.1%인 163명이 지난 1년 간 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표 1〉 참조), 방문 시기는 1분기를 제외하고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80.2%)이 주를 이루었으며, 동반자로는 동호회원(27.2%), 가족/친척(24.7%), 봉사자(15.4%), 친구/애인(12.3%), 혼자(8.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기간은 1박 2일(35.8%), 당일(29.0%), 2박3일(24.7%) 순이었으며, 여행 경비는 자비(54.3%), 사회단체(22.8%), 복지관(21.0%), 여행바우처(1.9%) 순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이용한 숙박시설은 호텔/콘도(35.0%), 민박/펜션(32.5%), 유스호스텔(10.8%), 가족/친척/친구의 집(10.0%) 순이었으며, 교통수단은 전세버스(31.1%), 자가용(24.4%), 항공기(15.6%), 기차(10.6%), 교통약자전용차량(9.4%), 고속/시외버스(7.2%)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8.5%는 지난 3년 간 1-2회 정도의 여행 참가 경험이 있었으며, 3-5회가 32.8%, 6-10회가 13.1%, 11회 이상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4.71.9%는 지난 3년 간 1-2곳의 관광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3-5곳은 34.3%, 6-10곳은 15.7%, 11곳 이상은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지/관광시설에 대한 지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4%는 낮거나 대체로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활동 중 발생한 예상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4.0%가 대체로 낮거나 낮다고 응답한 반면 대체로 높거나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 탐색

1) 연구문제 1의 고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장애인의 관광 관련 의사결정유형과 관광동기 유형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을 고찰하기 위해 관광 참여의도 형성 및 관광지 선택에 있어 작용한 19개 동기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을 각각 산출하였다(〈표 2〉 참조). 장애인의 관광 참여의도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 동기로는 '자연 속에서 휴식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평균 = 4.05)',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충전을 위해(평균 = 4.04)',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감상하기 위해(평균 = 3.88)',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평균 = 3.85)',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평균 = 3.81)', '주변 사람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평균 = 3.76)',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하고 싶어서(평균 = 3.7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장애인의 관광 참여의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 동기들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진요인에 해당되므로 추진요인에 해당하는 동기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관광 관련 행태적 특성 분석 결과

변수	범주	N	%	변수	범주	N	%	
지난 1년 간 여행 경험	있음	163	81.1	이용 교통수단*	자가용	44	24.4	
	없음	38	18.9		전세버스	56	31.1	
	합계	201	100.0		기차	19	10.6	
방문시기	1분기	21	13.0		고속/시외버스	13	7.2	
	2분기	66	41.0		항공기	28	15.6	
	3분기	37	23.0		선박	3	1.7	
	4분기	37	23.0		교통약자전용	17	9.4	
	합계	161	100.0		합계	180	100.0	
여행형태	개별	130	80.2		관광지/ 시설 지식 정도	매우 낮음	41	20.7
	패키지	32	19.8			대체로 낮음	45	22.7
	합계	162	100.0	보통		84	42.4	
동반자	혼자	14	8.6	대체로 높음		19	9.6	
	가족/친척	40	24.7	매우 높음		9	4.5	
	친구/애인	20	12.3	합계		198	100.0	
	회사동료	9	5.6	매우 낮음		57	28.8	
	동호회/회원	44	27.2	대체로 낮음		30	15.2	
	봉사자	25	15.4	보통		67	33.8	
	기타	10	6.2	대체로 높음		30	15.2	
여행기간	합계	162	100.0	유사시 대처 능력	매우 높음	14	7.1	
	당일	47	29.0		합계	198	100.0	
	1박2일	58	35.8		1-2회	96	48.5	
	2박3일	40	24.7		3-5회	65	32.8	
	3박4일	11	6.8		지난 3년 간 여행 횟수	6-10회	26	13.1
	4박5일 이상	6	3.7			11회 이상	11	5.6
합계	162	100.0	합계			198	100.0	
여행경비*	자비	88	54.3		지난 3년 간 방문 관광지 수	1-2곳	83	41.9
	복지관	34	21.0			3-5곳	68	34.3
	사회단체	37	22.8			6-10곳	31	15.7
	여행바우처	3	1.9	11곳 이상		16	8.1	
	합계	162	100.0	합계		198	100.0	
숙박시설*	가족/친척집	9	7.5					
	친구집	3	2.5					
	호텔/콘도	42	35.0					
	모텔	12	10.0					
	유스호스텔	13	10.8					
	민박/펜션	39	32.5					
	기타	2	1.7					
	합계	120	100.0					

*: 복수 응답의 빈도임

한편 장애인의 관광지선택에 있어서 작용하는 동기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자연 속에서 휴식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평균= 4.10)',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충전을 위해(평균= 4.07)',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감상하기 위해(평균= 4.02)',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평균= 3.91)', '주변 사람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평균= 3.82)',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평균= 3.79)',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평균= 3.74)',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하고 싶어서(평균= 3.77)', '이동의 불편함 없이 갈 수 있어서(평균= 3.70)' 등과 같은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관광지선택에 있어서 추진요인에 해당하는 동기들이 유인요인에 해당되는 동기보다 대체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나 일부 유인요인에 해당되는 동기들(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이동의 불편함 없이 갈 수 있어서' 등)의 중요성은 관광 참여의도 형성의 경우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관광 관련 의사결정 유형별 동기의 중요성

동 기	관광참여의도 형성			관광지선택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190	3.88	1.104	185	4.02	1.078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충전을 위해	190	4.04	.980	184	4.07	1.011
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189	3.48	1.201	182	3.45	1.233
자연 속에서 휴식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188	4.05	1.022	183	4.10	.969
시설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189	3.56	1.126	183	3.69	1.180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187	3.71	1.215	182	3.74	1.183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189	3.81	1.073	183	3.79	1.120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189	3.23	1.300	181	3.40	1.260
잘 알려진 장소이기 때문에	189	3.44	1.178	183	3.58	1.120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189	3.46	1.218	183	3.46	1.257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188	3.26	1.440	179	3.32	1.405
이동의 불편함 없이 갈 수 있어서	186	3.58	1.242	180	3.70	1.232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188	3.03	1.291	182	3.12	1.381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189	3.59	1.125	181	3.62	1.086
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188	3.55	1.180	182	3.57	1.124
주변 사람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189	3.76	1.064	179	3.82	1.073
관광지 주민/직원의 따스한 마음 때문에	189	3.22	1.313	179	3.46	1.299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189	3.85	1.107	181	3.91	1.071
보조도구(휠체어, 보청기 등)를 대여해주어서	189	3.08	1.404	179	3.21	1.449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관광동기유형과 장애인의 관광 참여 관련 의사결정유형 사이의 관계는 각 의사결정유형에 있어서의 동기의 중요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추진요인 → 관광 참여의도 형성, 유인요인 → 관광지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동시 작용적인 관계를 보인다 하겠다. 또한 의사결정의 유형에 관계없이 추진동기가 중요하고 유인동기 중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와 ‘이동이 불편함이 없어서’가 동일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2의 고찰

연구문제 2(장애인의 여행경력에 따라 관광 참여 관련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관광동기 유형이 가지는 중요성은 상이한가?)를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관광동기, 여행경력)의 측정항목에 대해 배리맥스회전법에 의한 주성분분석과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이 결여된 측정항목 제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준(항목 간 상관계수 .3 이상, 공통성 .4 이상, 요인 적재치 .4 이상, 단일 차원 적재 등)을 적용하였다(Veal, 1997).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상황(즉, 관광 참여의도 형성과 관광지선택)에 대해 동일항목을 통해 관광동기를 측정하였지만 측정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는 관광 참여의도 형성에 작용하는 관광동기 항목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먼저 관광동기 측정항목 19개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KMO = .860, Barlett $\chi^2 = 1241.469$ (df = 171, p = .000), 역이미지 상관계수 .606(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 .91627(관광지 주민/종업원의 따스한 마음 때문에)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하였으며, 아이겐 값 1 이상인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총 변량 설명력 62.106%). 각 요인은 적재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자신감 및 자아성찰,” “인지도 및 사회적 교류 기회,” “휴식,” “접근성 및 신기성,” “가족화합”이라 각각 명명하였다(〈표 3〉참조). 적재된 항목의 요인 적재치는 모두 .50 이상이었으며 Cronbach's α 값은 .72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추후 분석을 위해 총합척도를 산출하였다. 한편 도출된 5개의 요인 중 “자신감 및 자아성찰,” “휴식,” “가족화합,” “인지도 및 사회적 교류 기회”는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추진요인에, “접근성 및 신기성”은 관광목적지의 속성 관련 항목이므로 유인요인에 해당된다 하겠다.

여행경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2개 항목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 참조) KMO = .500, Barlett $\chi^2 = 319.960$ (df = 1, p = .000), 아이겐 값 1 이상인 단일 요인이 도출되었다(총 변량 설명력 94.871%). 적재된 항목

의 요인 적재치는 .50 이상, Cronbach's α 값은 .946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분석을 위해 총합척도를 산출한 후 총합척도의 크기에 따라 총합척도 값이 2.0 미만인 낮은 경력집단(N= 52), 총합척도 값 2.0서 5.0 미만 사이인 중간 경력집단(N= 76), 총합척도 값이 5.0 이상인 높은 경력집단(N= 59)등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관광 참여의도 형성에 작용하는 추진요인의 중요성이 여행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5〉 참조), 모든 추진요인에 대해 여행경력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낮은 경력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추진동기 요인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행경력에 관계없이 추진동기요인 중 “휴식” 관련 동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반면 “가족화합” 관련 동기가 가장 낮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요인인 “접근성 및 신기성”이 관광목적지 선택에 작용하는 중요성은 여행경력에 따라 유의수준 $\alpha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접근성 및 신기성” 관련 유인동기에 대한 중요성은 낮은 경력집단, 보통 경력집단, 높은 경력집단 순이었으나 Tukey 사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낮은 경력집단은 보통 경력집단과 높은 경력집단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관광 동기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성분					평균	표준 편차	공 동 성
	1	2	3	4	5			
1. 자신감 및 자아성찰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747					3.43	1.218	.655
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739					3.54	1.187	.639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735					3.70	1.221	.671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660					3.46	1.201	.531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596					3.79	1.077	.556
2. 사회적 교류 기회 및 매력성								
세상사에 대해 타인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751				3.58	1.133	.699
잘 알려진 장소이기 때문에		.694				3.42	1.171	.536
주변 사람들과 친목도모를 위해		.665				3.73	1.066	.605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574				3.23	1.300	.507
관광지 주민/종업원의 따스한 마음 때문에		.564				3.20	1.306	.475
3. 휴식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충진을 위해	.805	4.04	.979	.701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794	3.87	1.115	.681	
자연 속에서 휴식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689	4.07	1.025	.599	
4. 접근성 및 신기성					
이동의 불편함 없이 갈 수 있어서	.760	3.56	1.241	.653	
시설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722	3.54	1.130	.584	
보조기구를 대여해 주어서	.609	3.05	1.407	.569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496	3.82	1.113	.579	
5. 가족화합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864	3.24	1.435	.772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862	3.04	1.282	.788	
Eigen값	6.313	1.708	1.406	1.195	1.177
분산설명력(총 62.106%)	33.226	8.992	7.402	6.291	6.195
Cronbach's α	.824	.765	.748	.720	.769
Kaiser-Meyer-Olkin = .860, Bartlett $\chi^2=1241.469$, df= 171, p= .000					

〈표 4〉 여행경력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성분 1	평균	표준편차	공통성
지난 3년 간 방문 관광지 수	.974	4.57	4.879	.949
지난 3년 간 여행 횟수	.974	4.06	4.876	.949
아이젠값	1.897			
분산설명력	94.871			
Cronbach's α	.946			
Kaiser-Meyer-Olkin = .500, Bartlett's $\chi^2= 319.960$, df= 1, p= .000				

V.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과 관광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장애의 동적인 측면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Blichfeldt & Nicolaisen, 2010; Evans, 2004; Fitzgerald, 2005; Packer *et al.*, 2007)과 관광동기유형과 관광 참여와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관광 참여의도 형성, 관광지선택)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통일된 입장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동기 유형과 장애인의 관광 참여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유형 사이의 관계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여행경력에 따른 차이를 고찰하고자 함이었으며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관광 참여의도 형성에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 동기들은 추진요인과 유인요인 모두 포함되지만 추진요인에 해당하는 동기들(예: “자연 속에서 휴식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충전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관광지선택에 있어서도 추진요인에 해당하는 동기들의 중요성이 유인요인에 해당되는 동기보다 대체로 더 크게 작용하였으나, 일부 유인요인에 해당되는 동기들(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이동의 불편함 없이 갈 수 있어서’ 등)의 중요성은 관광 참여의도 형성의 경우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행경력에 따른 관광 참여 관련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추진 및 유인동기 요인의 중요성 차이

동기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p	Tukey 사후분석	
관광참여 의도형성 영향추진 동기요인	자신감 및 자아성찰	경력 낮은 집단	52	3.777	.821	1.743	.178	
		보통 경력 집단	73	3.471	.885			
		높은 경력 집단	58	3.583	.994			
		합계	183	3.593	.908			
	휴식	경력 낮은 집단	51	4.144	.770	1.090	.339	
		보통 경력 집단	76	3.9254	.825			
		높은 경력 집단	59	3.966	.920			
		합계	186	3.998	.842			
	가족화합	경력 낮은 집단	52	3.365	1.272	1.580	.209	
		보통 경력 집단	76	3.151	1.120			
		높은 경력 집단	58	2.948	1.324			
		합계	186	3.148	1.233			
인지도 및 사회적 교류	경력 낮은 집단	52	3.739	.786	1.655	.194		
	보통 경력 집단	69	3.464	.845				
	높은 경력 집단	53	3.615	.850				
	합계	174	3.592	.833				
관광 목적지 선택영향 유인동기 요인	경력 낮은 집단	53	3.953	.778	5.246	.006**	1 2 3 * *	
	접근성 및 신기성	보통 경력 집단	68	3.496				.951
	높은 경력 집단	53	3.458	.916				
	합계	174	3.624	.911				

*: α = .05 수준에서 유의함

** : α = .01 수준에서 유의함

이와 같은 결과는 추진동기요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사회적·정서적 측면의 불균형(즉 욕구)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갈망(desire)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보다도 관광활동에 대한 열망(관광 참여의도)을 형성한다는 선행연구들(Crompton, 1977; Dann, 1981; Uysal & Hagan, 1993)의 주장과 일부 일치한다 할 것이다. 한편 추진요인에 해당되는 많은 동기들(예: “자연 속에서 휴식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충전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등)의 중요성은 관광 참여의도 형성과 관광지선택에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Dann(1981)이 주장하였듯이 장애인관광객의 경우 목적지를 선택할 때 자신의 추진동기요인에 해당되는 동기요인이 충족되는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Pearce & Lee(2005)는 사람들은 관광활동참여와 관련하여 뚜렷하고 지속적인 동기, 즉 일상탈출/휴식, 사회적 관계 유지, 자아계발 등과 같은 핵심동기(skeleton/core motivation)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광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포함한 관광행동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관광 참여의도 형성과 관광지선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상기 동기들이 핵심동기에 해당 하는 경우라 사료된다. 한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관광지선택 결정의 경우 유인동기요인에 해당하는 이동의 용이성 관련 동기들(예: “시설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이동의 불편함 없이 갈 수 있어서”)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표 3〉 참조), 이러한 점은 장애인의 경우 관광지를 선택할 때 우선 핵심동기를 충족시켜주는가를 고려한 후 이동의 용이성을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관광동기유형과 장애인의 관광 참여 관련 의사결정유형 사이의 관계는 추진요인 → 관광 참여의도 형성, 유인요인 → 관광지선택이란 독립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Pearce & Lee(2005)와 Uysal & Hagan(1993)이 주장하였듯이 동시 작용적이라 할 것이다.

둘째, 여행경력에 따라 분류한 집단 간 관광 참여의도 형성에 작용하는 추진동기의 중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행경력에 관계없이 “휴식”과 “자신감 및 자아성찰” 관련 동기요인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대체로 높은 반면 “가족화합” 관련 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손실/결핍으로 인해 대체로 틀에 박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타인(가족 혹은 봉사자)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성향이 있다(Blichfeldt & Nicolaisen, 2010). 따라서 이들은 여행경

력에 관계없이 일상탈출 및 휴식 욕구가 강할 뿐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 행동 주체로서의 자신감 및 자아정체성 정립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데 관광활동에의 참여가 효과적임을 인식하고 있음에 연유한다 하겠다.

한편 응답자들이 추진동기 요인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여행경력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경력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이 9개 동기 요인 중 7개 요인에 대해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였음을 제시한 Pearce & Lee(2005)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관광 활동에의 참여 기회는 장애인체육, 평생교육, 타인과의 사교활동, 동호회 활동 등 다른 활동에의 참여 기회와 비례하는 특성이 있다(Blichfeldt & Nicolaisen, 2010). 따라서 관광경력이 높은 장애인들은 관광경력이 낮은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다른 활동에 대한 선택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따라서 관광 참여를 통해 추진동기요인에 해당되는 동기들을 충족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다 할 것이다.

셋째, 관광경력에 따라 관광목적지 선택에 작용하는 유인요인인 “접근성 및 신기성” 측면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유의수준 $\alpha = .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성의 크기는 여행경력이 낮은 집단, 보통 집단, 높은 집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행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은 관광지/관광시설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며, 내재화된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관광지/시설의 여건에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여행경력이 높을수록 장애인들이 “접근성 및 신기성” 관련 동기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은 낮아질 것이다. 반면 여행경력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는 관광지/시설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특히 관광지에서의 이동의 중요성이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러한 측면은 관광지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첫째, 비록 탐색적이긴 하나 장애인의 관광동기를 다룬 선행연구들(박종희·박경일·최정자, 2004; Blichfeldt & Nicolaisen, 2010; Ray & Ryder, 2003)과는 다른 접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관광동기는 관광 관련 의사결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일컫는데, 그동안 학계에서는 추진 및 요인동기 요인이 관광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적(Crompton, 1979, Dann, 1981) 혹은 동시 작용적(Pearce & Lee, 2005; Uysal & Hagan, 1993)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 작

용적임을 제시한 본 연구 결과는 관광동기와 의사결정과정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인관광자 관련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간과되어 온 장애의 ‘동적(dynamic)’인 측면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여행경력에 따라 관광지 선택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유인동기요인(특히 “접근성 및 신기성”)의 중요성 차이를 고려할 때 동적 접근방법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무적 측면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관광동기 중 일부동기(예: “자연 속에서 휴식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충전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등)는 관광 참여의도 형성 뿐 아니라 관광지선택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핵심 동기인 반면 “접근성 및 신기성” 관련 유인동기요인은 관광지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관광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관광지 마케팅 담당자는 이와 같은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광지 환경/시설을 개선하거나 상품/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홍보/광고전략 수립·실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각종 상황(예: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자립센터 회원 모임, 관광활동참여, 장애인복지관 방문 등)에 참여한 장애인들을 편의추출법에 의거 선정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향후에는 국내 거주 장애인을 대표하는 표본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광 관련 연구에 있어 상황이나 장소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상황 혹은 장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Pearce & Packer, 2013) 본 연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관광동기와 의사결정 관계를 고찰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정한 형태의 관광(예: 생태관광, 모험관광, 체편관광 등) 참여의도 형성 혹은 특정 목적지선택 혹은 장애유형별 등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동기 규명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관광동기와 관광경력을 측정하는 항목을 도출하여 사용하였지만,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동기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 결여 문제, 연구 대상(장애인)에 적합한 항목 도출 미흡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행경력에 따른 집단을 여행경력의 총합적도를 중심으로 구분함으로써 Pearce & Lee(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분류 문

제를 해결하기는 하였으나, 분류 기준의 자의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인 접근과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하여 여행경력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집단을 구분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승현 · 이영진(2011). 장애유형에 따른 관광제약의 차이 분석: 지체 · 시각 · 청각 장애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3(1), 193-212.
- 박정아 · 한동일 · 이주희(2011). 장애인유형에 따른 여가 특성 연구. 『관광 · 레저연구』, 23(2), 279-297.
- 박종희 · 박경일 · 최정자(2004). 장애인의 관광 참여 동기와 장애에 관한 탐색적 조사. 『학술논문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관광학회 제55차 학술대회, 181-194.
- 신선정 · 고동완 · 이정태(2008). 복지관광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의미 분석. 『관광연구』, 23(3), 95-117.
- 심재명 · 최정자(2008). 프리리스트팅(free listing)방법을 이용한 장애인의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6), 363-382.
- 이경찬(2014). 지체장애인의 개인가치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철(2012). 지체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 삶의 질, 행동의도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봉구(2008). 관광 관련 제약요인이 장애인의 관광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eligman의 무력감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2(2), 39-59.
- _____(2011). 장애유형별 관광지 및 관광정보 관련 속성에 대한 만족 차이와 각 속성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차이: Matzler와 Sauerwein의 삼(三)요인 만족 모델의 적용. 『관광학연구』, 35(5), 55-80.
- _____(2013). 장애인관광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관광업계의 인식 및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7(7), 55-76.
- 전영록(2010). 장애인의 개인가치, 감성지능이 관광선호에 미치는 영향. 『관광 · 레저연구』, 22(4), 23-42.
- Aitchison, C.(2003). From leisure and disability to disability leisure: Developing data, definitions and discourses. *Disability & Society*, 18(7), 655-969.
- Beard, J., & Ragheb, M.(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 219-228.

- Bergier, B., Bergier, J., & Kubínska, Z.(2010).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tourism and recreation of people with varying degrees of disability. *Journal of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Part A*, 73(17), 1134-1140.
- Blichfeldt, B. S., & Nicolaisen, J.(2010). Disabled travel: Not easy, but doable. *Current Issues in Tourism*, 13(1), 1-24.
- Buhalis, D., & Darcy, D.(2011). *Accessible tourism: Concepts and issues*. Bristol, UK: Channel View.
- Burnett, J. J., & Baker, H. B.(2001). Assessing the travel related behaviors of the mobility-disabled consumer.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 4-11.
- Chang, Y., & Chen, C.(2011). Identifying mobility service needs for disabled air passengers. *Tourism Management*, 32(5), 1214-1217.
- Crompton, L.(1979). Motivations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408-424.
- Dann, G. M.(1981). Tourism motivations: An appraisal. *Annals of Tourism Research*, 8(2), 189-219.
- Darcy, D.(2002). Marginalized participation: Physical disability, high support needs and tourism.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9(1), 61-72.
- _____ (2010). Inherent complexity: Disability, accessible tourism, and accommodation information preferences. *Tourism Management*, 31(6), 816-826.
- Decrop, A.(2006). *Vacation Decision Making*. Wallingford, UK: CABI Publishing.
- Dwyer, L., & Darcy, S. (2008). Chapter 4: Economic contribution of disability to tourism in Australia. *Technical report*, 90040, 15-21.
- ENAT(2009). UK Tourism Firms Encouraged to Improve Accessibility. <http://www.accessibletourism.org/?i=enat.en.news>.
- Evans, J.(2004). Making a difference? Education and 'ability' in physical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0(1), 95-108.
- Falk, J. H., Ballantyne, R., Packer, J., & Benckendorff, P.(2012). Travel and learning: A neglected tourism research area.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2), 908-927.
- Fitzgerald, H.(2005). Still feeling like a spare piece of luggage? Embodied experiences of (dis)ability in physical education and school spor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0(1), 41-59.

- Genoe, R., & Singleton, J.(2009). World Demographic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rapeutic Recreation. In Stumbo, N. J.(Ed.), *Professional Issues in Therapeutic Recreation on Competence and Outcomes*. Sagamore: Champaign, IL.
- Hsu, C. H. C., & Huang, S.(2008). Travel Motiva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s Development. In A. Woodside & D. Martin(Eds.), *Tourism Management: Analysis, Behavior and Strategy*. Wallingford, Oxon: CABI.
- Huh, C., & Singh, A. J.(2007). Families traveling with a disabled member: Analysing the potential of an emerging niche market segment. *Tourism & Hospitality Research*, 7, 212-229.
- Hung, K., & Petrick, J. F.(2012). Testing the effects of congruity, travel constraints, and self-efficacy on travel intentions: An alternative decision-making model. *Tourism Management*, 33, 855-867.
- Iso-Ahola, S. E.(1982).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9(2), 256-262.
- Israeli, A. A.(2002).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importance of site accessibility factors for disabled touris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1(1), 101-104.
- Lovelock, B. A.(2010). Planes, trains and wheelchairs in the bush: Attitudes of people with mobility disabilities to enhanced motorized access in remote natural settings. *Tourism Management*, 31, 357 - 366.
- Mathieson, A., & Wall, G.(1982). *Tourism: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Essex, UK: Longman.
- McKercher, B., Packer, T., Yau, M. K., & Lam, P.(2003). Travel agents as facilitators or inhibitors of travel: Percep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urism Management*, 24, 465-474.
- Neumann, P., & Reuber, P.(2004). Economic impulses of accessible tourism for all. *Study commissioned by th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BMWA), Berlin, Germany*.
- Packer, T. L., McKercher, B., & Yau, M. K.(2007). Understanding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tourism, disability and environmental contexts. *Disability & Rehabilitation*, 29(4), 281 - 292.

- Pearce, P. L.(1988). *The Ulysses Factor: Evaluating Visitors in Tourist Settings*. New York: Springer-Verlag.
- Pearce, P. L., & Lee, U.(2005). Developing the travel career approach to tourist motiv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 226-237.
- Pearce, P. L., & Packer, J.(2013). Minds on the move: New links from psychology to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40, 386-411.
- Pine, J., & Gilmore, J. H.(1999). *The Experience Economy: Work Is Theater and Every Business A Stag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Plog, S.(1974). Why destination areas rise and fall in popularity. *Cornell Hotel, Restaurant and Administration Quarterly*, 14(4), 55-58.
- Ray, N. M., & Ryder, M. E.(2003). "Eibilities" tourism: An exploratory discussion of the travel needs and motivations of the mobility-disabled. *Tourism Management*, 24, 57-72.
- Ryan, C.(1998). The travel career ladder: An appraisa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4), 936-957.
- Scarinci, J., & Pearce, P.(2012). The perceived influence of travel experiences on learning generic skills. *Tourism Management*, 33, 380-386.
- Shaw, G., & Coles, T.(2004). Disability, holiday making and the tourism industry in the U.K.: A preliminary survey. *Tourism Management*, 25, 397-403.
- Shi, L., Cole, S., & Chancellor, H. C.(2012). Understanding leisure travel motivations of travelers with acquired mobility impairments. *Tourism Management*, 33, 228-231.
- Smith, R. W.(1987). Leisure of disabled tourists: Barriers to trav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3), 376-389.
- Uysal, M., & Hagan, L. A. R.(1993). Motivation of pleasure travel and tourism. *Encyclopedia of Hospitality and Tourism*, 798, 810.
- Veal, A. J.(1997). *Research Methods for Leisure and Tourism*(2nd ed.). London: Prentice Hall.
- World Health Organization(2007). Disability, including prevention,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http://www.who.int/nmh/a5871>.
- Yau, M. K., McKercher, B., & Packer, T. L.(2004). Traveling with disability: More than an access issu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4), 946-960.

2014년 4월 1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4년 5월 12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4년 5월 14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